

힘받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 36년 만의 합가 현실화 되나

행정체계개편 권고안 긍정 시그널
통합고려지역에 양 시도 이름 올려
특별법 제정 물밑작업 추진 가속도
행정통합민관협 비전·목표 제시 등
완성도 높은 특별법안 구성 내놔야

〈속보〉=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 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계개편 자문위원회가 미뤄왔던 지방행정체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대전·충남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권고되며 이목을 끄는데 지역에서도 합가(合家)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본보 23일자 1면 보도〉
지난 22일 발표된 권고안의 핵심은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 등 8가지다. 특히 권고안에 대전·충남이 광역시·도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과 함께 꼽힌 것이 주목할 만하다. 2052년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 25%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분리 36년 만에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 추진을 선언,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한 두 시도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내에서도 큰 틀에서는 대전·충남의 통합 과정에서 권고안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가 포착된다. 그간 대전·충남 통합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던 시선을 해소하고 의지만 충분하다면 해볼만하다는 시그널을 던져줬다는 측면에서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대전·충남의 통합 추진을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다음 선거 때 유리하게 쓰려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는데 권고안이 나오면서 그런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정부에서도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기 때문에 이 논의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한다면 성사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준 것이라 본다”라고 진단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는 23일 충남도청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비전(안)과 특별법(안),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송의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세배 예절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다. 민관협은 이날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를 미래 비전으로 내놔다. 목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의 도약, 충남의 반도체·모빌리티와 대전의 우주·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집적화로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 육성 등이다. 또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시민 행복 증진, 국가

전략산업 진흥,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등을 제시하고 12대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저출생·고령화 극복, 광역교통망 구축, 내륙과 해안을 연계하는 문화·예술·관광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중앙권한 대폭 이양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방에 필요한 권한을 염전해서 제정하기로 했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

은 “산업·경제, 도시개발, 농업, 해양수산, 자치재정, 자치조직·인사 등 특별시가 필요로 하는 권리를 중앙에 적극 요구하겠다. 향후 기획분과위원회 주도로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고 민관협 전체회의를 열어 완성도 높은 통합 특별법안을 구성, 시·도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이준섭 기자 jis@ggilbo.com

‘가로림만 해상교량’ 정부계획 반영

이동시간 110분서 3분으로 단축
기재부 예타통과 여부 최대 관건

가로림만을 가로질러 충남 서산과 태안을 연결하는 연륙교가 다시 한 번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23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태안 이원~서산 대산 간 연륙교 건설사업이 국토

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2647억 원을 투자해 5.3km 해상교량으로 이원과 대산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원에서 대산까지 자동차로 이동거리는 70

km에서 2.5km로 단축되고 소요 시간도 1시간 50분에서 3분 안팎으로 크게 줄어든다. 가로림만 연륙교 건설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 사업은 당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는데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아 담보상태에 빠진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역시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성 의원은 “연륙교를 포함해 국도 29

호선 서산 대산 영탑~대산, 국대도 29호선 서산 성연~인지 건설 등 3건의 사업들이 모두 예타를 통과해 설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서산=윤기창 기자

대전 변화가 찬바람만

▶3면

27~31일자 신문 쉽니다

便:사·새·내:물 무니·이 文 나
安 롬·로·이 홀 르 런 字 랏
한:마·스·톨·스 고 전
·키·다·물·츄·미
·후:히·여·힐·히
·고:여·들·字·어
·저:수·빙·니·겨
·흥:수·빙·니·겨
·삭:미·날·로
·루:미·날·로
·미:라·부
·라·부
·메

SEJONG 세종이 미래다
SEJONG IS THE FUTURE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문화 세계화를 선도합니다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